주식전략 이은택 et.lee@kbfg.com
연구원 이다은 de-lee@kbfg.com

2025-07-08

더 많은 리포트 보기

트럼프, 한국·일본 등에 25% 관세를 통보하다

트럼프, 한국·일본 등에 25% 관세 통보

트럼프는 Truth Social을 통해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일본에는 25% 관세율을 발표했고, 발효일은 8월 1일이다. 또한 무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가 가능하며, 이 서한이 마지막 경고라고 표현했다. 오늘 발표국 외에도 12~15개국에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 밝혔다.

트럼프 관세 부과 통보안

국가	관세율	발효 예정일	비고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25%	8월 1일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적용
남아프리카공화국	30%	8월 1일	BRICS 추가 제제 가능
라오스, 미얀마	40%	8월 1일	저개발국에 고율 관세
BRICS 협력국 (ex. 베트남, 이란 등)	추가 10%	미정	BRICS 협력 시, +10% 추가 관세 가능성 언급

자료: 언론보도 종합, KB증권

이번에도 나온 '90일 기한' 연장. 시장은 여전히 낙관적

시장은 관세 부과에도 '낙관적인 전망'이 다수이다. 8월 1일이 되면 트럼프는 또 협상 시한을 연장할 것이고, 그러다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에 증시는 급락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그전은 시장보단 관세에 대해 조심스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관세는 부과될 것). 그럼 진짜 관세 부과 시점은 언제일까?

트럼프는 언제 정말 관세를 때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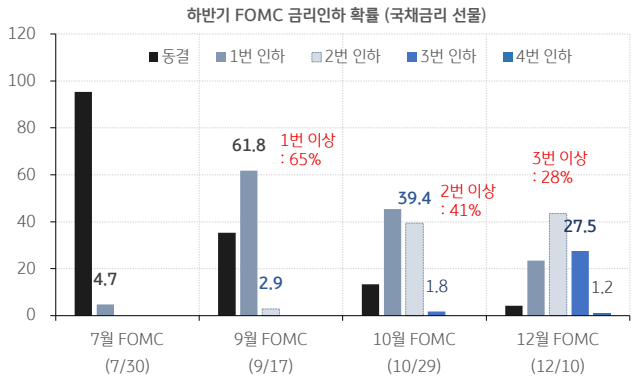
관세를 위해선, 최소한 '4가지 조치'가 먼저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봄엔 관세 부과 이후 '달러자산 발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세 때문에 미국자산이 더 급락한다면, 트럼프의 협상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조치를 먼저 준비한 뒤 관세를 때릴 것이다.

1, 2) 감세법안, 미국증시 신고가: 당초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네 가지 중 달성된 두 가지이다. 미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을 방안들이다

3) 관세협상 타결: 지난번엔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고, 이는 미국경제만 더 흔들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번 관세의 주요 타깃이 아닌 국가들 (ex. 중국)과는 대강 합의를 매듭짓고, 이번 '핵심 타깃 (한국/일본/대만+EU?)'으로 축소해 관세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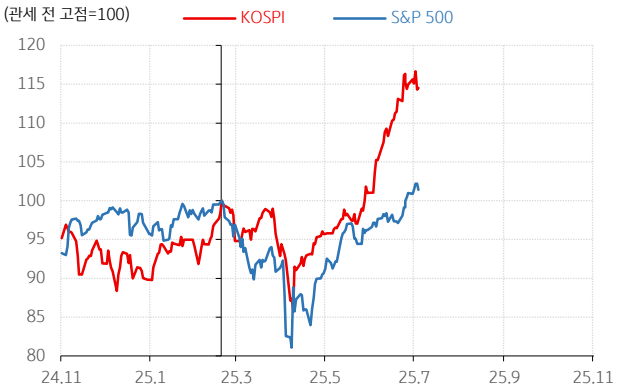
4) 금리인하: 트럼프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싶을 것이다 (7월 FOMC, 7/30). 만약 관세 부과로 제차 미국증시가 하락한다면, FOMC에서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해서 미국증시를 받쳐줄 수 있게 만들고 싶을 것이다. 연준이 더 크게 인하한다면, 미국증시는 더 잘 버틸 수 있다

국채선물에 반영된 올해 FOMC 금리인하 확률



자료: CME Group, KB증권

3~4월 트럼프 관세 부과 당시엔 미국증시가 더 큰 폭으로 급락



자료: LSEG, KB증권

1. 트럼프는 한국 등에 25~40%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했다. 발표 예정일은 8월 1일이다
2. 시장은 관세에도 낙관적 전망이 다수이다. 이는 증시를 단기 급락 후 회복시킬 요인이다. 다만 이그전은 관세에 조심스러운 생각이다
3. 결국 관세는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관세부과 전에 있을 네 가지 선결 조건에 대해 적었다

투자자 고지사항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KB증권